

6 기획-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여건 분석

교육여건 부문 중 3개 상세 지표 분석

	지표계산법	2019	2020	2021	특이사항	향후 계획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총액/등록금 징수 총액) X 100  장학금 총액(학부)=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장학금 · 사전 등록 장학금만 해당) 등록금은 계절학기, 단기 수강료 제외	26.9%	26.7%	25.7%	-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재적 비율에 비해 등록금 총수입 상승(2021년 → 2022년 약 80억 원 증가) - 등록금: 계절학기 제외 학부 등록금 전체 - 교내 장학금: 사전 등록 장학금만 해당 - 재적 학생 수에 비해 등록금 규모는 크나, 국가장학금은 장학금 지표에 제외된 점	- 대외 장학금 활성화를 위한 TF진행 - 단과대학 전공연수 및 학생 지급 장학 프로그램 확대 예정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교육비 총액/납입금 총액) X 100  총 교육비에서 ‘도서자료구입비’와 ‘기계기구매입비’는 제외	187%	179.7%	183.9%	(2021년 기준) - 연세대학교 270.6% - 건국대학교 226.5%	차년도 ▲장학금 ▲소규모 강의 확대에 따른 추가 강의료 ▲도서자료 구입비 ▲전공연수 확대 ▲현장실습 확대 등 교육비 집행 확대로 각종 교육비 지급률 제고를 위한 여건 마련 예정
세입 대비 기부금	(기부금/세입) X 100  사립대 기부금 =교비회계 결산 기부금+산단 결산 기부금	70.4억 원	98.5억 원	69.3억 원	(2021년 기준) - 고려대학교 378.0억 원 - 성균관대학교 314.6억 원	- 올해 100억 원 정도 예산 편성 - 대학 차원의 대규모 기부금 모집 요망

경희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교육비 지급률·기부금, 경쟁대학 대비 현저히 낮아 대학, 장학지급 등 교육비 집행 확대 계획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강나윤 기자 nadoni814@khu.ac.kr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세부지표 중 하위 세 번째 대학은 장학금 확대 준비

# 지난호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사를 통해 우리학교가 총 세 개 부문 중 교육여건에서 실망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신문은 기획조정처에서 제공한 ‘중앙일보 평가 분석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취재를 진행해, 교육여건 부문 중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세입 대비 기부금 등의 세부지표를 분석했다. 또한 우리 학교가 최근 3년간 공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운영과 교육여건을 연관 지어 대학평가 부진 원인을 짚어봤다.

우리학교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지표에서 15점 만점에 3.88 점을 받으며 34위에 머물렀다. 직전 평가에 비해 0.62점이 하락해 교육여건 내 12개 세부지표 중 세 번째로 낮은 순위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2020년 26.9%, 2021년 26.7%, 2022년 25.7%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반면 등록금 총수입은 2021년 대비 2022년 약 80억 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처 김중백 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방식과 절대평가 성적 기준으로 인해 2021학년도 재적 학생 비율이 높았다”며 “그로 인해 등록금 총수입 역시 비례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표는 등록금 징수 총액대비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을 합한 장학금 총액의 비율로 산정됐다. 다만 등록금은 계절학기를 제외한 학부 등록금이 전체 집계되고, 교내 장학금은 사전에 등록된 장학금만 집계돼 상대적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학교는 재적 학생 수가 많아 등록금 총액 규모가 큰 편이나, 재적 학생들이 받는 국가장학금은 대학평가에서 제외돼 장학금 지표가 더 과소 측정됐을 가

능성도 있다.

그러나 해당 지표의 저조한 결과를 단지 ‘등록금 대비’와 ‘국가장학금’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다.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의 절대 액수만 살펴봐도 장학금 총액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장학금 총액은 2021년에 비해 2022년 약 8억 원이 축소됐다. 이에 우리학교는 2023학년도 장학금을 30억 가량 더 편성하고 현재 운용할 수 있는 기금 내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소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조정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수치 개선을 위해 ▲대

외 학생 지급 장학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10점 중 1.37점 받아 교육비 제고 위한 여건 마련 계획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의 경우 교육여건 부문 총점인 95점 중 10점이 배정돼 순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는 해당 지표에서 10점 중 1.37점을 받으며 작년보다 0.19점 하락해 33위에 머물렀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은 납입금 총액 대비 교육비 총액

지표 점수 산식 방법

지표 점수 산식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 산식 특징에 따라 본교의 강점 및 실적이 지표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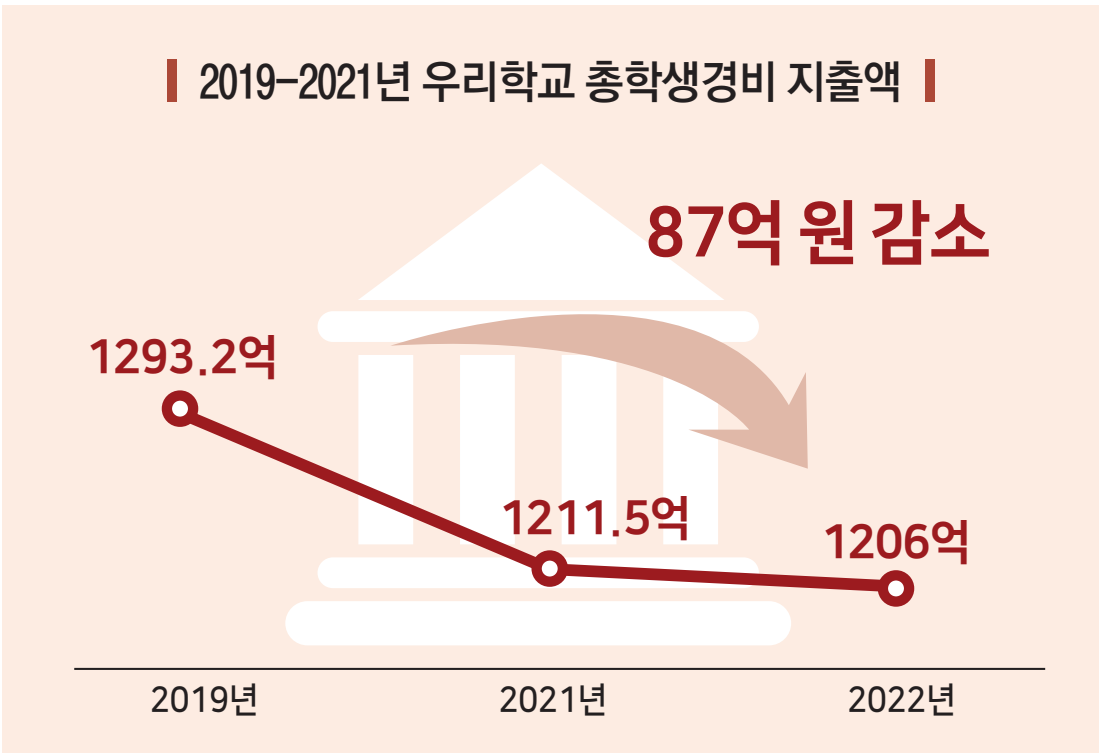
- 1) “지표 1위 대학 만점 ~ 지표 최하위대학 0점” 점수 산출 방식 → 실제 실적 대비 점수 격차 확대 가능성
- 2) 계열별 보정에 따라 실제 실적과 점수 간 역전 가능
- 3) 상대평가에 따라 경쟁대학의 실적이 지표 점수에 크게 작용

ex.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 편수

: 경희대와 건국대의 교원 1인당 국제논문편수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계열별 보정과 순위별 점수 산출의 영향으로 지표상 0.8점 차이

	1인당 국제논문편수	계열별 보정 실값	지표 점수 (순위)
경희대학교	0.78	1.30	7.53 (9)
건국대학교	0.78	1.44	8.45 (4)

대학평가 항목별 세부 지표 및 배경과 우리학교 점수



37년간 우리학교 총학생경비

료구입비와 기계기구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됐다.

도서자료구입비와 기계기구매입비를 제외한 교육비 총액은 2019년 5469.5억 원, 2020년 5211.8억 원, 2021년 5484.4억 원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대비 약 270억 원이 상승했다. 등록금 수입의 경우 2019년 2923.4억 원 2020년 2899.8억 원, 2021년 2981.0억 원으로 2019년부터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이에 따라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은 2019년 187.0%, 2020년 179.7%, 2021년 183.9%로 2020년에 비해 2021년 소폭 상승했지만, 우리학교가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던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종합 7위를 차지한 건국대학교의 경우 2021년 226.5%, 교육여건 부문 2위를 차지한 연세대학교의 경우 270.6%의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을 보여 우리학교와는 40~86% 가량 큰 차이를 나타냈다. 기획조정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도서자료 구입비에 추후 10억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기구매입비의 경우 역시 2019년 81.9억 원, 2020년 85.5억 원, 2021년 126억 원으로 최근 2년 새 40억 가량 가파르게 증가했다. 김 처장은 “공공기관원 중 앙기센터 등 실험 장비를 한 곳에 모아 수업, 연구에 활용하는 부분이

한편 교육비 지급률에서 제외된 우리학교 도서자료구입비는 2019년

54.6억 원, 2020년 54.1억 원, 2021년 64.1억 원으로 최근 2년간 약 10억 원 가량 늘어났다. 그 결과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 세부지표에서 총 7점 중 3.79점을 차지하며 작년보다 0.28점 상승했다. 기획조정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도서자료 구입비에 추후 10억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기구매입비의 경우 역시 2019년 81.9억 원, 2020년 85.5억 원, 2021년 126억 원으로 최근 2년 새 40억 가량 가파르게 증가했다. 김 처장은 “공공기관원 중 앙기센터 등 실험 장비를 한 곳에 모아 수업, 연구에 활용하는 부분이

록 기자재를 확충하고 있다”며 기계기구매입비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세입 대비 기부금 지표에서는 5점 만점에 1.48점을 기록하며 22위에 그쳤다. 사립대학의 경우, 기부금 지표는 대학알리미 기부금 현황에 반영되는 수치 중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만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됐다. 우리학교는 2021년 기준 98.5억 원의 기부금을 확보했다. 기부금은 교외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그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변동된다. 다만 서울 주요 타 사립대학의 기부금 수입 현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는 고려대학교 (고려대) 378.0억 원, 성균관대학교 314.6억 원보다 매년 기부금이 적게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부금 수입은 약 98.5억 원으로, 378억 원인 고려대의 ¼에

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김 처장은 “2020년 기준 기부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편”이라며 “올해는 100억 원 정도의 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공개된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학술진흥팀은 세입 대비 기부금을 한계점으로 지적하며 “대학 차원의 대규모 기부금 모집이 요망”됨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학평가 항목별 세부 지표 및 배경과 우리학교 점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경비 변동 폭 커 교육여건에 영향 미쳤다

기획조정처의 분석 자료와 별개로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감사증명서를 통해 우리학교의 총 학생경비 부문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기도 했다. 총 학생경비는 ▲교외 장학금 ▲교내장학금 ▲실험실습비 ▲논문심사료 ▲학생지원비 ▲종합심사료 ▲기타 학생경비 항목

으로 구성돼 있다. 위 항목들을 모두 집계한 총 학생경비를 검토한 결과, 2020년에 비해 2021년 약 5억 원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등록금을 포함한 운영 수익이 증가했음에도 총 학생경비는 하락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학생지원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생경비 항목의 편성 금액이 줄었다. 특히 2019년 대비 2021년 총 학생경비는 약 90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293.2억, 2020년 1211.5억, 2021년 1206.7억 등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드는 학생경비가 교육여건 전체에 미친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한편, 교육여건 부문 중 강의 규

모 지표는 43위를 차지했다. 평가대상 대학 중 하위권에 속하지만 전년 대비 0.9점 상승한 수치이기는 하다. 음악대학 레슨 강좌 분반 및 캡스톤디자인 강좌 확대 등으로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 수가 569개 증가한 것이 점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대학 순위에서 하위권에 위치한 것은 학교 운영을 감안했을 때 우리학교를 비롯한 대형 규모의 대학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 처장은 “강의실 크기마다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강의를 여러 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부문에서 낮은 순위는 대학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향후 소규모 강의를 계속 확대해가면서 ▲추가 강의료 ▲도서자료 구입비 ▲전공연수 확대 ▲현장실습 확대 등 교육비 집행 확대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학생과 교수의 일대일 만남 또는 심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독립 연구, 독립 심화, 학과별 캡스톤 디자인 강좌 등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경우 중앙일보에서 별도로 마련한 지표계산법으로 점수 산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표별 실제 양적 수치와 지표계산으로 보장된 실값, 최종 지표 점수 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일례로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 편수에서 우리학교와 건국대의 ‘교원 1인당 국제논문편수’는 모두 약 0.78편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계열별 보정과 순위별 점수 산출의 영향으로 계열별 보정 실값 0.14편 차이로 최종 지표 점수는 약 0.9점 가량 우리학교가 낮게 산출됐다.

기획조정처는 이번 대학평가를 토대로 개선안을 모색하면서 학교의 지향점과 대학평가 척도 간 차이에 따라 그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영국 신문사 ‘더 타임스(The Times)’에서 발행하는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는 251~300위권에 속하며, 이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김 처장은 “우리학교가 추구하는 지향점 또는 본질과 중앙일보 평가 척도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학교 측에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겠으나, 학생들이 순위

에 크게 동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신문은 교육여건과 재무제표 자료에 대한 상세 분석을 기획조정처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음 신